

12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13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국어 영역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 과학관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A]

연구관: 네, 안녕하세요. 술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학생: 먼저 금속으로 만든 술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고, 술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구관: 기록에 따르면 하나라 때에 금속으로 술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유적지에서 금속으로 만든 술이 발견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술은 나라와 왕의 업적을 의미하여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B]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무쇠로 만든 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구관: 한국 고고학 사전에 따르면 무쇠술은 형태에 따라 정과 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정은 다리가 세 개이고 주둥이가 약간 넓게 퍼진 모양이고, 부는 다리가 없고 주둥이가 좁은 술이랍니다. 사진 자료를 찾아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학생: 네. 저는 민간에서 두루 사용하던 무쇠술은 밥을 짓는 데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연구관: 물론 무쇠술을 밥을 짓는 데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쇠술은 밥을 짓는 용도 외에도 국을 끓이거나 반찬을 만들 때와 소죽을 끓이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술뚜껑은 전을 부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C]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무쇠술으로 지은 밥맛이 최고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관: 혹시 열의 대류와 전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생: 네, 과학 시간에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 무쇠술으로 지은 밥이 맛있는 이유는 열의 대류와 전도에 있답니다. 무쇠술은 바닥이 가장 두껍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얇아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열을 받으면 술 전체에 열이 빠르고 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무거워 내부 압력이 적당하고 오랫동안 높은 온도를 유지시켜 준답니다. 이처럼 무쇠술에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밥알이 단단하고 찰기 있어 맛이 있는 겁니다. [D]

학생: 무쇠술은 과학적 원리가 담긴 훌륭한 발명품이었네요.

연구관: 그렇답니다. 현대의 발전된 과학 기술은 이런 전통 기술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참, 한술밥 먹는 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서로 허물없이 지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관계를 뜻합니다. 학생도 한술밥을 먹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냈으면 좋겠네요. [E]

학생: 네. 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는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A]~[E]에 나타난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학생은 인터뷰의 취지를 밝히며 인터뷰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 ② [B]: 연구관은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사용하여 핵심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C]: 연구관은 학생이 알고 있는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보충을 해 주고 있다.
- ④ [D]: 연구관은 과학적 개념을 정의하며 학생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 ⑤ [E]: 연구관이 학생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학생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2.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술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술의 역사와 술에 담긴 의미
 - 하나라와 고조선 시대에 금속 재료로 된 술을 사용했다는 기록 자료의 출처와 유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술으로 나라와 왕의 업적을 나타낸 역사적 사례를 보충하여 제시한다. ㉡
- 무쇠술의 종류와 무쇠술의 용도
 - 무쇠술인 정과 부를 각각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 ㉢
 - 무쇠술이 밥을 짓는 제한된 용도로 쓰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무쇠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
 -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대류와 전도의 개념을 언급하며 무쇠술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국어 영역

[3~5]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시 의회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 동물원 폐쇄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주민 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평소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신 ○○○ 정책 국장님께 투표단을 대상으로 동물원 폐쇄를 지지하는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시의 주민들로, 동물원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보호 연대 정책 국장으로 동물 보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입니다. 저는 그간 여러 학술 대회와 세미나에서 동물 보호와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의 시민으로서 요즘 우리 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원 폐쇄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여러분들은 동물원의 동물 쇼를 보며 혹시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실제로 동물 쇼를 하는 동물들이 다양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쇼를 하는 동물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이 받는 고통도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코스타리카는 세계 최초로 동물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2014년부터 동물원을 식물원으로 전환하고,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0년 후엔 동물원이 없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동물원도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원을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동물원이 멸종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멸종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보호 센터를 운영하면 됩니다. 또한 동물원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 교수의 책 『동물 해방』에는 ‘어떤 존재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인간과 같다면 그들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체인 동물 역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보았을 때, 동물은 구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둬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시의 동물원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시의 시민이라는 청중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②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해야겠어.
- ③ 동물원 폐쇄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동물원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므로 화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 ⑤ 청중이 동물원 폐쇄의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하므로 동물원 폐쇄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됨을 강조해야겠어.

4.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시사적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가 동물원을 폐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A] : 상황에 적절한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시의 동물원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 :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분석하고 있다.
- ④ [B] : 멸종 보호종 보호 센터 운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⑤ [C] : 화제와 관련된 책의 일부를 인용해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5.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의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코스타리카의 사례는 동물원 폐쇄와 관련이 없어서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② 동물원 폐쇄 시 멸종 보호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동물원 폐쇄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 ③ 동물원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④ 피터 싱어 교수의 생각은 동물원을 폐쇄하지 말자는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⑤ 동물의 권리를 밝히지 않고 동물원 폐쇄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국어 영역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하여 글 쓰기

■ **학생의 초고**

얼마 전 지하철역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던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구했다는 ㉠ 아름다운 미담을 들었다. 이 시민은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이처럼 심폐 소생술은 존각을 다투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한 응급 처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폐 소생술의 시행률은 저조하다.

한 연구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 소생술 시행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는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래서 다른 원인은 실습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재교육을 받지 못해 심폐 소생술을 잘 할 수 있을지 ㉢ 염려되어져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심정지 환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반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를 시행할 수 있게 하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심정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교육을 받은 지 1~2년 이상 경과하면 시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심폐 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한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심정지 발생 후 이른 시간 내에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작스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는 심폐 소생술 교육 방법의 개선과 지속적인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6.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것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

- ㉠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잘 알려진 우화로 글을 시작한다.
- ㉡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가 직접 설문 조사한 내용을 제시한다.
- ㉢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 해결 방안이 구체성을 지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 ㉤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속담을 사용해 글을 마무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학생의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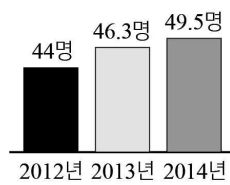
<보 기>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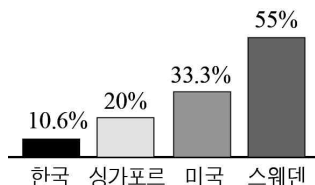
심정지 환자는 일반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실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심정지 발생 후 생존하여 회복하게 되는 환자의 비율이 10%로, 우리나라의 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통계 자료

1.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 현황
(인구 10만 명 당)



2. 2014년 4개국 심폐 소생술
시행률 비교



3.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원인

원인	응답(%)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48.3
심폐 소생술 방법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38.8
심리적으로 당황해서	12.9

(다) 국내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

“스웨덴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 전체 교육 시간의 65% 이상을 실습 교육에 할애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은 실습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한 반복적인 교육이 심폐 소생술 시행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처럼 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심폐 소생술 시행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죠.”

- ① (가)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3을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원인 중 재교육이 부족해 심폐 소생술 시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심폐 소생술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외국의 교육 사례를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⑤ (나)-1과 (나)-2를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폐 소생술 시행률은 저조하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8.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아름다운’을 삭제해야겠어.
- ② ㉡: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 ③ ㉢: 피동 표현이 중복되므로 ‘염려되어’로 고쳐야겠어.
- ④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겠어.

국어 영역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 핀 몇 송이의 꽃들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그 꽃들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단이 아닌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피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꽃들로부터 나는 감동을 받았고, 또 꽃들이 서로의 줄기를 지탱 하듯 자란 모습을 보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담쟁이’라는 시의 구절이 떠오르며 감동이 더해졌다. ‘㉠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 까지’라는 구절이었다. 이처럼 [A]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있었던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생각이 났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동아리 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뜻대로 똑심 있게 일을 추진했기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던 동아리 부원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시의 구절처럼, 발표를 위해 힘든 과정을 견디며 함께 노력했던 동아리 부원들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발표를 포기하려 했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 하나의 힘이 아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 협력에 있었다. 이러한 협력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협력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
- ② 협력과 관련된 정서적 체험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깨달음과 연결한다.
- ③ 협력이 갖는 실용적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이 갖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한다.
- ④ 협력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일반적인 협력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준다.
- ⑤ 협력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해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10. [A]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첫 번째 문장은 ㉠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서 꽃들의 상황과 연관 지어 쓸 것.
- 두 번째 문장은 ㉡에 대해 직유법을 사용하여 쓸 것.

- ① 꽃들도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처럼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견뎌 냈을 것이다. 서로를 위한 양보는 모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것이다.
- ② 꽃들도 서로 의지하며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무엇보다 삶의 다양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③ 꽃들도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 놓였어도 함께 하는 자세가 중요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여건에 놓였더라도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④ 꽃들이 보도블록 사이에 필 수 있었던 것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시련을 이겨 냈기 때문이다. 흠어지면 약하지만 뭉치면 단단해지는 눈 같은 협력의 힘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게 하는 것이 아닐까.

⑤ 꽃들이 필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햇살처럼 웃을 수 있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보 기>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 [옮겨서] 밥을 먹었다.
- ㉡ 그녀는 내 말을 굳이 [구지] 따지려 들지는 않았다.
- ㉢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 [입문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 ㉣ 나는 말을 더듬지 [더듬찌]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 ㉤ 그는 듄직한 [듄지칸] 성품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 ① ㉠의 예: 굼기다, 급하다
- ② ㉡의 예: 미단이, 뽀대다
- ③ ㉢의 예: 집문서, 만누이
- ④ ㉣의 예: 껴안다, 꿈같이
- ⑤ ㉤의 예: 굼히다, 한여름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조사 중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가 있다.

- ① ‘국수라도 먹으렴.’에서의 라도
- ②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
- ③ ‘그 과자를 먹어 보았다.’에서의 으
- ④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
- 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

국어 영역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 누나는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 할아버지께서 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
㉣ (선생님과의 대화 중)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아버지와의 대화 중)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 ① ㉠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은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르다¹ [이르러, 이르니] ㉠ 【...에】

①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목적지에 이르다
②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결론에 이르다

이르다² [일러, 이르니] ㉢

①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일러 주었다.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② 【...을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를 도루묵이라 이른다.

이르다³ [일러, 이르니] ㉤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그는 여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 ① ‘이르다¹①’과 ‘이르다¹②’의 유의어로 ‘다다르다’가 있겠군.
- ② ‘이르다¹’과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③ ‘이르다¹’은 규칙 활용을 하지만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불규칙 활용을 하겠군.
- ④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르다³’은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겠군.
- ⑤ ‘이르다³’의 용례로 ‘올해는 예년보다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5.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어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나이가 많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 나이가 크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①

○ 조사의 쓰임이 잘못된 경우
예 우리는 아버지에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 우리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②

○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집에 가던지 학교에 가던지 해라.
→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예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④

○ 문장 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된 경우
예 그녀는 노래와 춤을 추고 있다.
→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⑤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

나라히 파망(破亡)호니 :파·과 ㅁ·롬:쑤 잇고
·жат ·앗 보·믹 ·플·와 나모:쑤 가·팻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嘆)·호니 고·지 ·눕·므를 쑤·리게 ·코
여·희여·슈믈 슬·후니 :새 믈·스·물 :놀·래·느·다
봉화(烽火) | :석·드·를 나·세·사·니
자·빳 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스·도·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언해』 중에서 —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이 깊어 있도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도다.

- ① ‘보·믹’는 현대 국어의 ‘봄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끊어 적기를 하였군.
- ② ‘플·와’가 현대 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방점이 쓰였군.
- ③ ‘쑤·리게’가 현대 국어의 ‘뿌리게’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군.
- ④ ‘믈·스·물’이 현대 국어의 ‘마음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 ‘·’가 사용되었군.
- ⑤ ‘드·를’이 현대 국어의 ‘달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

해설

③④⑤⑤③
③②②②④
③⑤④③①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C]에서 연구관은 무쇠술의 용도에 대해 밥을 짓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과 반찬을 만들 때나 소죽을 끓이는 데 사용했고, 솥뚜껑은 전을 부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알고 있는 내용에 보충을 해 주고 있다.

① 학생은 인터뷰 취지는 밝히고 있으나 절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④ 연구관은 열의 대류와 전도에 대한 언급은 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평가하기

무쇠술은 밥 짓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무쇠술이 밥을 짓는 제한된 용도로 쓰인 이유를 밝히겠다는 발표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인터뷰에서 기록과 유적을 바탕으로 솥의 역사를 설명했으므로 발표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기록 자료의 출처와 유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역사에 등장하는 솥이 나라와 왕의 업적을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를 보충하여 제시하면 더 충실한 발표를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평가하기

청중이 동물원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함은 ‘연설 의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에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연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연설자가 연설 계획 단계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연설의 전략 평가하기

[C]에서 연설자가 피터 싱어 교수의 책 『동물해방』의 일부인 ‘어떤 존재들이 ~ 대상이 되어야 한다.’를 인용하여,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라는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3문단에서 연설자는 예상되는 반론으로 멸종 보호종의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멸종 보호종의 보호에 대해 동물 보호 센터 운영을 들어 반박하고 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2문단에서는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3문단에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다.

② 설문 조사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나’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둘째 단락에서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 소생술 교육 기회가 적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심폐 소생술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나)-3에서도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이다. 따라서 (나)-3을 활용하여, 재교육이 부족해 심폐 소생술 시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의 미국의 사례에 따르면 심폐 소생술의 재교육이 심폐 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고 있다. 이를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심폐 소생술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1과 (나)-2에는 각각 국내 심정지 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우리나라의 심폐 소생술 시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통계 자료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를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⑥의 ‘그래서’는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로 수정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정도로 고쳐야 한다.

① ‘아름다운 미담’은 ‘아름답다’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아름다운’을 삭제해야 한다.

9. [출제의도] 글쓰기 방법 파악하기

학생이 쓴 글에는 학생이 우연히 보게 된 꽃을 통해 느낀 감동이 문학 작품으로 이어지는, 문학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정서적 체험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동아리 발표 대회라는 학생의 경험과 이를 통해 학생이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① 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협력의 단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일반적인 협력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첫 번째 문장에는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를 직접 인용하면서 보도블록 사이에 꽃들이 서로의 줄기를 지탱하듯 자란 모습과 연관 지어 시련을 이겨 냈음을 썼으며, 두 번째 문장은 협력에 대해 ‘홀어지면 약하지만 뭉치면 단단해지는 눈 같은’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② ㉔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며 꽃들의 상황과 연관을 지었지만, 협력에 대해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첫 번째 문장에 직접 인용이 없으며, 두 번째 문장에 직유법을 사용하였지만 협력에 대한 것이 아니다.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㉔의 ‘입문하여[입문하여]’에서 ‘입문’이 [입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의한 것인데, ‘집문서’가 [짐문서]로, ‘만누이’가 [만누이]로 발음되는 것 역시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① ㉑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것인데 ‘급하다’가 [그파다]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② ㉒은 구개음화에 의한 것인데 ‘뽀대다’가 [뽀때다]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④ ㉓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꿈같이’가 [꿈가치]로 발음되는 것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⑤ ㉔은 거센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한여름’이 [한너름]으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조사의 쓰임 파악하기

⑤의 ‘처럼’은 체언에 결합하여 모양이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①의 ‘라도’는 체언에 결합하여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②의 ‘야’는 체언에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③의 ‘느’은 어미에 결합하여 ‘대조’나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④의 ‘만’은 부사에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13. [출제의도] 높임 표현 파악하기

‘선생님’은 주체가 아니라 상대이다. 이 문장의 주체는 ‘제(나)’이다.

② 행위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다’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에게’의 의미를 지닌 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⑤ ㉔에서 청자는 ‘아버지’이므로 상대는 ‘아버지’이고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14.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사전의 활용 정보를 보면, ‘이르다’은 ‘이르러, 이르니’와 같이 활용되며, ‘이르다’와 ‘이르다’은 ‘일러, 이르니’와 같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르다’은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용언임을 알 수 있고, ‘이르다’와 ‘이르다’은 어간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용언임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하기

‘나이가 작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나이’는 크기의 개념이 아닌 수량이나 정도의 개념이기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으로 고쳐, ‘나이가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보믹’는 받침이 있는 체언(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익)가 붙을 때 받침에 쓰인 중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 썼다. 따라서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이어 적기에 해당한다.

③ ‘썩.리게’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인 ‘ㄱ’과 ‘ㄴ’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